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이 관심있게 보시는 것      성경: 누가복음 21장 1-4절

Tag: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눅21:1-4)

하나님은 과부에게 관심이 많다. 성경에 과부라는 단어는 84회, 반면 부자라는 단어는 과부라는 단어 수의 딱 절반인 42회 등장한다. 고아라는 단어도 61회나 등장하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오는 구절도 32회, 즉 과부라는 단어의 1/3 이상이 고아와 함께 등장한다.

물론 세상에 과부가 많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숫자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베푸신다는 뜻이다. 왜냐면 약자이므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하고 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그 정성으로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

옳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잘 도와 주는 사람이었다.

누가복음에 유독히 과부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 2장에는 밤낮 금식하며 메시야를 기다리던 과부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누가복음 4장에는 엘리야 시대의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셨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장사하러 가고 있는 과부를 붙잡히 여기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 주셨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악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자 그 강철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엄중한 심판을 예고 하셨다.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과부 이야기이다. 오늘 말씀은 당시 현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렷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순간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셨다. 두 렷돈이라면 한 고드란트이고, 네 고드란트가 한 앓사리온이었다. 열여섯 앓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다. 그렇다면 두 렷돈(1고드란트)은 한 데나리온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즘 데모도(조력공)는 12만원, 미장공은 20만원이다. 20만원이 한 데나리온이라 치면, 두 렷돈은 6250원, 데모도 일당으로 치면 3750원이다.

예수님은 왜 이 과부의 헌금에 감동하셨을까?

가난한 과부가 가련해 보였기 때문일까? 측은지심.

그녀의 헌신에 감동하셨을까?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를 헌금했다.

당시에는 특히 과부라면 자녀들이 한 두명 있게 마련이다.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그들을 돌보고 따뜻하게 품고 잠을 청해야 한다. 어딘가 가서 품을 팔았을 것이고, 아마도 일을 봐준 집에서 저녁거리를 주었을지 모른다. 시장에 가서 이

것저것 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서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간절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간절함이나 절박함 때문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전부를 헌금했을 것이다. 그 문제가 자녀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질병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집세나 부동산에 관한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아니면 그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감사를 헌금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

왜 과부가 되었을까?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고를 당했나? 독립 운동을 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나? 그녀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설교를 듣기도 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는 못했겠지? 애들을 돌봐야 하니까. 그래도 애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설교집회는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까? ...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녀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비록 그녀의 삶은 비천하고 낮아 보잘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경건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녀를 기르고 있었다. 틀림없이 그녀는 자녀들을 아주 경건하고 모범적인 유대인으로 키우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자녀들의 표정, 말투,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제대로 된 행동과 생각, 태도 하나하나 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

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에 게으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영적전쟁의 핵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이 영성이다.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전쟁에서 지는 것.

또한 그녀는 성전을 소중히 여겼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성전에 자주 찾아와 기도하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헌금하는데 정성을 쏟았을 것이다.

물론 그녀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았다. 보잘 것 없는 인생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전혀 벌어들이지 못하는 때도 있었을 것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이다. 자녀들을 잘 키워내면 그녀에게도 다복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각각 가정을 꾸리고,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자들도 생기면 그녀의 가정도 여느 가정 못지않게 다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40여년이 지나면 멸망한다. 그러면 이 여인은 70여세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하고, 청년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녀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녀는 여차하면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것과,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건에는 예지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런 것들까지 모두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두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과부가 다 경건하지는 않다. 그럴 경우 두말할 것도 없이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 심할 경우 버려지는 아이도 있고, 고아도 있으며, 험악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자란 애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험악하게 하는데 일

익을 감당했고, 예루살렘은 그런 무력을 통해서 로마에 대항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감시당하게 되었고, 경건한 자들은 몰래 도망가야 했다. 이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들은 마사다 요새까지 도망하여 결국은 함께 자결하고 말았다.

요즘도 여전히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있다. 이들은 부자를 미워하고, 대기업 대표들은 갑질을 한다고 믿고, 미국은 제국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들은 때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소망하고,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한다. 왜 이러는 겁니까?

물론 부자들도 경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욕처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자의 자격이 없다. 대기업 대표들은 직원들을 식구처럼 따뜻하게 대우해야 한다. 미국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인류의 공영을 위해 더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있게 보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경건이다. 아무리 힘겨워도 충분히 경건할 수 있는 처지가 곧 가난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는 그 가난 때문에 전체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 것이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슬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이 경건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두고 지켜보신다. 가난한 사람의 경건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의 헌금은 아주 작더라도 그 자신의 전부가 되는 영적인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헌금은 부자의 헌금과 급이 다르다. 그의 기도는 부자의 기도와는 급이 다르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절절한 기도가 힘들다. 부자는 회개할 때 피해보상도 엄청나다. 부자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하며 부자는 그 돈이 아깝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남편이시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주인이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신앙 간증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Tag:

###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중학교 때의 신문팔이. 신문팔이와 자전거는 나의 건강을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다. (몇년을 했는지 모른다 한3년?)

중앙일보, 여성중앙이라는 잡지의 구독자. 신문보급소에 쌓여있는 월간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는 봤다. 한달에 한번씩 월급 받으러 감.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곳에서 문화적 자유주의 사상을 접함. 자유연애, 중매가 아닌 자의로 상대를 고르는 것의 가치,(당시 연속극의 중심 주제) 사랑의 가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등이 관심 대상.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등. 헨리8세...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

-초등학교 때는 유교사상과 정조의 중요성이 심겨짐. 이미 이때부터 광산김씨적 성격 드러남. (초등-고등부까지 친구들에게 거의 매력 못 느낌. 1. 말이 통하지 않음. 수준낮음. 2. 치사함, 유치함 3. 무관심-전도에 큰 걸림돌; 이런 성격을 역이용 하기로 함.)

-아무튼 중학교가 성에 눈을 뜨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적인 방종으로 갈 것인지, 성적인 지조를 지킬 것인지, 영혼을 더럽힐 것인지, 영혼의 순수성을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된다.

-여기에서 방종으로 가면 부모의 감시로부터 자신을 숨기게 되고,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게 되면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다. 자신의 짝을 선택할 때 용감하게 되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짝을 선택하게 되고, 사랑이 주는 무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됨. 그래야 저주를 끊게 되므로. 그러면서 각자의 사랑 드라마를 찍게 됨.

-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이 주요 사상이 됨.
- 고1 가장 성령충만한 시절, 신영균목사에게 깊이 빠짐. 기독교 대백과 사전, 여름수련회, 장성 시온산기도원에서 은사주의 접함.

###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 고2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책
- 고3 헬리코박터 때문에 위장출혈(인생에 총3회) -고3 8월에 아내를 만남.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 신학대학을 통한 10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됨.